

서평 『작은 교회 새롭게 다시 보기』

작은 교회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교회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작은 교회 새롭게 다시 보기』 책 제목 자체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제목이다. 아마 작은 교회에 대한 지난날의 좋지 않았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 것 같다.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라 불리는 이런 작은 교회는 어쩌면 별로 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인지 모른다.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또 모르는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면하게 되는 주제일 수 있다.



정명수, 염두철 저
예영커뮤니케이션

그러나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교회’들이 많다. 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픔과 고통의 절규가 이 땅에 가득하다. 비록 표현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더라도 아픔이 많다는 것, 심각한 어려움 중에 작은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척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물론 그 안다는 폭과 깊이는 서로 다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작은 교회들이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작은 교회’라는 주제를 말하기 어려운 까닭은 암울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작은 교회가 다 같은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교인이 가족 외에 거의 없는 교회도 있고 삼사십 명 모이는 작은 교회도 있다. 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있고 상가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모이는 교회도 있다.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도 각각각색이고 목회자의 성향이나 작은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의 성격도 다 다르다. 즉 작은 교회에 대해 얘기할 때 한 가지 모델을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작은 교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작은 교회’를 골칫거리나, 죽어가기에 살려야 할 대상이

나,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고 잘못된 접근이지만, 작은 교회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 어쩌면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 답이 없는 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다루기 힘든 주제인 '작은 교회'라는 주제로 저자들이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나아가 그 작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것이 굉장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

감사한 것은 이 책의 저자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라는 사실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중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라는 것이다. 작은 교회에 대한 최소한 두 가지의 경험과 두 가지의 시각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자들은 다양한 목회 경력에 있고 또 현재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 책에 믿음이 생긴다. 저자 중 한 명인 장명수 목사는 선교학을 전공하고 러시아 선교사로도 사역하였고, 또 다

른 저자인 염두칠 목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그리고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경험했다. 그래서 저자들은 작은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에 대한 이해도 풍부하다. 두 분은 고교 친구로 40년 동안 우정을 나누며 또 개척교회의 목사로서 사역하고 있다. 두 분 저자가 오랜 목회 활동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또 그것에 기초해서 작은 교회 밖이 아니라 안에서 작은 교회를 바라보고 책을 썼기에 신뢰를 가지게 된다.

책 내용

이 책은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특히 개척교회를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목회자들에게는 익숙한 얘기여서 쉽게 이해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예화와 다양한 글을 통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또 근거를 제시한다.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 '나의 길을 가리라'에서는 작은 교회의 현실에 관해 얘기한다.



김신정 고려신학대학원과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고민하며 기존 신자들의 양육과 그리스도인의 라이프스타일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전인적인 신앙과 철저한 헌신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살기운동(www.cim.kr)의 대표이며 저서로는 리포밍 처치(기독교 세계관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파도타기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실력이 좋은 프로 서퍼(Surfer)라도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멋진 파도타기를 할 수 없다. 파도가 잠잠한데 굳이 파도타기를 하겠다고 파도를 만들려는 사람은 없다. 인위적으로 파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저자는 작은 교회가 목회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면서 현 상황이 부흥의 시대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교회의 의미를 말한다. 작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작은 교회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작은 교회는 작지만 건강하고 공동체성이 있는 곳이다. 작은 교회는 자신의 장점을 살려 당당하게 작은 교회로서 정체성을 갖고 존재하기 위해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하나의 존재 양식과 교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작은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도 자연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2부 ‘일어나 함께 가자’에서 저자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빠지게 되는 탈진과 좌절과 우울에 대해 말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용기와 힘을 주는 얘기들을 한다.

“언제까지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외형적 성공과 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가치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가치관이 뒤집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 부정적인 말에 귀를 닫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이제 다시 일어나자.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할 일 많은 일터와 우리를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나가자.”

또 저자는 작은 교회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을 제공한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작은 교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의 정체성으로 당당히 존재하는 것이다. 가족과 같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한다.”, “힐링 사역은 소그룹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잘할 수 있다.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주님의 품안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3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에서 저자는 큰 교회와의 관계와 협력에 대해 얘기한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 저자는 큰 교회가 작은 교

회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한국 교회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내야 한다. 더 이상 개교회주의, 개교단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힘을 합쳐서 “오늘날 교회를 뿌리째 흔드는 물량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순수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같이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작은 교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이 책은 작은 교회에 대한 성공담도 아니고 작은 교회의 비결을 소개하는 책도 아니다. 단지 작은 교회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 낙심한 작은 교회에게 그들의 사역의 의미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책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실패와 무능이 아니라 작은 교회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그야말로 작은 교회는 새롭게 다시 보아야 할 대상임을 일깨운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우리의 글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아직은 부족하기에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이 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우리가 제안한 작은 교회에 대한 대안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융합되어 더 효율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듯이, 이 책이 모든 작은 교회의 문제를 다 다루거나 모든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작은 교회는 스스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위로와 새로운 시각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작은 교회 새롭게 다시 보기’를 읽으면서 작은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어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어둠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힘든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작은 교회들은 아픔을 가진 채 오랫동안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교회들, 또 그런 작은 교회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 원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고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많은 작은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작은 교회를 단순히 실패와 좌절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새롭게 다시 바라보기를 바란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매일 작은 교회를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훌륭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